

민주당 재보선 완패

한나라 5 대 민주 3... 남구 장병완·은평을 이재오 당선

전국 8곳에서 치러진 7·28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승했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는 물론 인천 계양을, 충남 천안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에 따라,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여권은 지난 6·2지방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향후 정국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광주 남구와 강원 원주, 태백·영월·평창·정선 등 3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쳐 사실상 완패했다.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선에서 당선된 장병완 후보가 28일 밤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

	장병완(민주)	오병윤(민노)
득표수	26,480	20,877
득표율	55.9%	44.1%

영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 서민, 젊은이 속으로 들어가 기쁨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8곳 중 3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광주 남구에서는 민주당 장병완 후보가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승리를 거뒀다.
강원 원주와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는 민주당 박우순 후보와 최종원 후보가 각각 한나라당 이인섭, 염동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 선거 패배로 향후 민주당의 진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6·2 지방선거 승리 이후 탄력을 받던 정권 주도권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차기 당권경쟁을 앞두고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손학규 고문을 비롯한 ‘빅3’의 입지 등 당내 역학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선거 패배 책임론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재보선 패배에 대해 “국민의 평가만 만큼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선, 서울 은평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범야권 단일주자인 민주당 장상 후보를 여유있게 누르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40%대를 넘어 서자 후보단일화 효과로 극적인 역전승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초반부터 벌어진 격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충북 충주에서는 윤진식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당 정기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 출신의 윤 후보는 세종시 수정 추진 여파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다.

충남 천안에서도 한나라당 김호연 후보는 당초 박빙의 예상을 깨고 민주당 박완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한나라당은 충청권 두 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중원을 장악하는 기세를 토했다. 또한, 인천 계양을에서는 한나라당 이상근 후보가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민주당 김희갑 후보에 역전승을 거뒀다.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도 한나라당 한기호 후보가 민주당 정만호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는 물론 인천 계양을과 충남 천안을, 강원 철원 등 5곳에서 승리를 거둬 따라 집권 하반기에 들어선 여권은 추후 정국 운



정남진 물축제 개막

‘제3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 축제’가 28일 장흥군 탐진강과 장흥댐 생태공원에서 개막했다. ‘물과 숲·휴(휴)’를 주제로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교육·문화·생태·건강·놀이·체험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장흥=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서 첫 국제아트페어 열린다 9월 1일~5일 DJ센터

국내의 유명 갤러리가 대거 참여하는 국제아트페어가 오는 9월 1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관련기사 13면〉
광주비엔날레재단과 아트광주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이용우·윤영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광주비엔날레를 연계, 아시아권 국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제아트페어 ‘2010 아트광주 Art Gwangju’가 9월 1일~5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조직위원회는 28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 아트광주 Art Gwangju’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국내외 유명 갤러리 60여곳이 참여해 현대 미술과 디자인 관련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갤러리는 영국의 리스갤러리와 이탈리아의 컨티뉴아갤러리, 일본의 갤러리 토미오 코야마, 중국 탕갤러리 등 해외 갤러리 40여곳과 박여숙 화랑, 예화랑, 이도화랑 등 국내 20여

곳이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여타 아트페어와의 차별화를 위해 아시아 신진작가 초대전, 현대미술 거장전, 디자인 유명 갤러리 60여곳이 참여해 현대 미술과 디자인 관련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전시기간 중에는 저명한 아티스트와 컬렉터, 큐레이터, 비평가 등이 대거 참여하는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관객 참여프로그램과 퍼포먼스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5.1% 인상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확정, 다음달 3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 3만4560원을,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880원과 97만6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9일부터 열흘간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알아보면 우선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가운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생활보조, 복리후생 수당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만 가려내야 한다.

그다음 금액을 정해진 근무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이므로 환산하고서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된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옛 도청별관 보존방식 오늘 발표

부분 보존 폭 어느 정도 될지 관심 집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 포함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별관의 보존 방식이 29일 발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8일 “29일 오후 2시 30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6층 추진단 광주사무소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방식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달 보존방식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당 인근 금남지하상가의 일부 지반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데다, 5·18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지난 20일 열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부분 보존’에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보존폭이 어느 정도일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별관 건물 철거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으로 완공시한이 기존 2012년에서 2014년으로 2년 연장되는 등 공사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설계변경안이 지역 내 의견수

렴을 거쳐 확정될 경우 추진단은 기획재정부와 광주시 등과 협의를 거쳐 전당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유현석기자 chadol@



VENICE GLASS FANTASIA

글라스 판타지아 지상전

▼스키아본 가문 '네투노'(왼쪽) '올데리코'

시원한 푸른색과 검은색 선의 조화

세계 최고 유리 공방 스키아본(Schiavon) 가문의 자유분방한 예술성이 잘 표현된 작품들. 이들 작품은 시원한 푸른색과 자연스러운 선의 조화를 강조한 작품이다.
푸른색 유리로 작품의 원형을 만든 뒤 검은 색 유리로 타원형의 선을 반복해 안정감을 줬다. 또 균데균데 투명한 유리를 곁들여 다양한 유리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전은 오는 8월22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수분의 요점

Subhasan